

코너스톤교회 32주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션 이루자”

이종용 목사 은퇴식도 열려 3인 공동목회 체제로 개편

코너스톤교회가 창립 32주년을 맞아 감사 및 이종용 목사 은퇴에 배를 드렸다. 이날 코너스톤 성도들은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큐티사역을 통한 신앙의 변화를 나누고, 이종용 목사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눈물의 간증을 쏟아냈다.

설교에서 이종용牧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행 13:1-3)란 제목으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금 일깨웠다.

이牧사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언어와 생각, 신앙 생활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며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 안을 돌보고 세상을 품는 두 눈을 가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가 지체로서 눈, 코, 입, 귀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성령 충만하면 결코 분열할 수 없다”고 했다. 이牧사는 오늘날 교회가 1세와 2세, 언어와 세대, 문화로 갈라진 현실을 지적하며 “하나



코너스톤교회 사역자들. ©기독일보

되는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예배 중 통역을 통해서도 연합할 수 있다. 주님의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다. 단기선교를 갈 때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어른, 1세와 2세 모두가 함께 갔다. 그렇게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교회는 거룩한 고통이 따르게 된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힘을 얻었다”며 “코너스톤교회가 어떤 환란 속에서도 믿음과 선교의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

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미셸 김 집사, 민준호 JIM대표, 최경주 장로, 박종렬 목사(조이머스교회),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김동환 집사 등이 축복의 메시지를 나눴다.

이들은 “그동안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 삶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이 있었다”며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이제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결단을 하신 것은 큰 축복이다. 40년 가까이 목사님을 뵈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큰 복이었다. 늘 위로와 도전을 주는 선배 목사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종용 목사의 투병 시기를 함께 겪은 한 목회자는 “암이 찾아왔을 때 그걸 이겨내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며 “은퇴라는 타이어 교체의 시기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범위를 더욱 넓혀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코너스톤교회는 데이빗 리 목사, 홍성표 목사, 조슈아 서 전도사가 3인 공동목회 체제로 구성되어, 이들이 예배 및 행정, 교육부 등 교회 전반에 참여해 이끌게 된다. 이종용 목사는 원로목사로 섬기게 된다. 이날 모든 순서는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美 기독교인들, ‘성경적 가치관’ 급격 약화

미국 내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성경적 가치관, 특히 생명 존중과 가정의 정의에 대한 신념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성인 중 ‘생명 존중(Pro-life)’ 입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2년 만에 63%에서 43%로 급락했다는 점이다.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10월 13일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FRC)와 애리조나 기독교대학교 문화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조사는 최소 월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성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의 핵심 도덕 이슈에서 교회 출석자들과 세속 사회 간의 간극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 압력 속에서 교회가 신념을 지키는 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FRC 성경적 세계관 센터의 데이비드 클로슨(David Closson) 소장은 “수십년간 기독교인들이 태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 왔지만, 이번 결과는 문화적 혼란이 교회 안으로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사회 이슈와 세계관: 교회 출석 미국인에 대한 국가 조사’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FRC의 연례 행사인 ‘기도하고, 투표하고, 일어 서라’ 서밋을 앞두고, 2023년 동일 조사 결과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연구를 이끈 조지 바나(George Barna) 박사는 생명 존중 입장이 20%p 하락한 동시에 ‘낙태 찬성(Pro-choice)’ 입장이 22%에서 3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는 교회 내 거의 모든 인구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으로 생명 존중 입장이 강했던 집단에서 큰 하락이 있었다. 자신을 복음주의자로 자처하는 이들은 33%p, 50세 이하 성인들은 2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념 일관성에 관한 질문에서

는, 교회 출석자의 73%가 여섯 가지 낙태 관련 항목에서 상충된 견해를 보였고, 10%는 “명확한 입장을 형성할 만큼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모호성 증가는 “성경이 낙태에 대해 명확하다”는 확신이 줄어든 것과도 관련이 있다. 2023년에는 교회 출석자의 65%가 성경이 낙태에 대해 명확하고 결정적이라고 믿었으나, 2025년에는 그 비율이 51%로 떨어졌다.

강해진 기자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 미국 ↔ 한국 ₩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www.marhlaw.com
■ 상법/부동산법 ■ 병크법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 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평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 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5 다민족연합기도대회
“Repent, Revive, Restore”
주여, 수년 내에 대부흥을 보내 주소서!
일시 2025년 11월 2일(주일) 4:0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92833)
미국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미국사의 위기 때마다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 부흥을 보내주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주셨습니다. 미국은 부흥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부흥이 수년 내에 임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비상기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함께모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흥과 회복을 구하는 의미깊은 모임에
하나님과 미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회조직
고문 : 송정명, 한기형, 김영길, 김인식, 최홍주, David Andrade, David Diaz, Dion Elmore, Jorge Puentes (이상 목사) **대표대회장** : 한기홍목사
공동대회장 : 강종민, 고승희, 고태형, 구봉주, 권혁빈, 국윤권, 김경진, 김기동, 김태형, 김종규, 김한요, 남성수, 노창수, 민경엽, 박성근, 박신웅, 박은성, 박현성, 샘신, 신승훈, 신용환, 심상은, 이종용, 이창남, 진유철(이상 목사, 가나다 순), Wolfgang, Elmer Jackson
준비위원장 : 강승영목사(310-995-3936) **공동준비위원장** : 이창남목사(818-317-9582) **사무총장** : 강태광목사(323-578-7933)
주관 : 다민족연합기도대회준비위원회 **주최** : 은혜한인교회, JAMA, OC교회, 남가주교회, 성시화운동본부, 청교도신앙회복운동
후원 : 미주복음방송및 크리스천 언론사들, 시온산재단, CMF, OC목사회, OC장로연합회, OC기독교전도연합회, 각지역 교회협의회와 목사회와 여성목사회

“중세교회의 유덴자우…홀로코스트로 이어져”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저자 김인식 목사 세미나
홀로코스트보다 더 큰 상처…
유대 피난민에게 문을 열어
잠근 교회와 국가들, 루터의
반유대주의 주장…히틀러로
이어져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는 10월 20일과 21일(월·화) 이틀간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강사로는 김인식 목사(킹덤월드미션 대표,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첫째 날 강의는 이상명 총장(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의 기도로 시작됐다. 김 목사는 “성경은 통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 성취 과정이며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할 때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왕 같은 제사장’, ‘에덴’, ‘예루살렘’,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강의에서 김 목사는 ‘하나님의 전략’을 주제로, 타락한 문명 회복판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소개했다. 그는 행위 언약(아담 언약, 모세 언약)과 은혜 언약(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예루살렘 언약을 비교하며, 언약의 통합적 성취가 메시아 왕국의 도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브라함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계승되었고, 오늘날 중동 분쟁까지 이어지는 근본적 토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땅 언약을 무시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



갈보리선교교회에서 10월 20일과 21일(월·화) 이틀에 걸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김인식 목사(킹덤월드미션 대표)를 강사로 ‘성경, 빅픽처를 보라’ 세미나가 열렸다.

를과 예언의 완성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브라함 언약과 가나안의 회복이 단순한 민족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방인도 믿음으로 새 언약에 동참했지만,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대체된 것은 아니다”라며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에 복을 흘려보내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세계적 갈등의 배경을 다뤘다. 김 목사는 ‘유엔’, ‘교황’, ‘오바마’, ‘이슬람 지하드’, ‘팔레스타인 분쟁’, ‘인본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등 현실 정치·외교 이슈를 언급하며 그 영적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유엔은 이스라엘의 수도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황청은 예루살렘을 유대교·기독교·이슬람 3대 종교의 공동 성지로 국제도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슬람 지하드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며, 인본주의적 시각에서는 이스라엘을 ‘불법 국가’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유대계 오스트리아 언론인인 테오도어 헤르츨은 19세기 후반 시오니즘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시오니스트 회의’를 개최하고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위해 국제법으로 보호받는 고

향을 만든다”는 결의를 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Titus)에 의해 예루살렘성이 함락되면서 약 58만 명이 사망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와 노예로 잡혀갔다고 전했다.

그는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인을 역사에서 완전히 지우기 위해 ‘이스라엘’과 ‘유대 땅’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으로, ‘예루살렘’을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로 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이후 반유대주의 정서로 이어졌으며, 이 사상이 교부들뿐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순교자 저스틴은 ‘유대인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은 더이상 효력이 없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이그나티우스는 유대 절기와 축제에 동참하는 자를, 주님과 제자들을 죽인 사람과 공범자라고 정죄했다.”

터툴리안은 “유대인을 반대하며”라는 책을 저술해, 반유대주의를 공고히했고 오리겐은 교회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라는 해석을 최초로 도입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역시 유대교에 반대했는데, 안식일을 폐하고, 유대적 뿌리를 근절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크리스

소스툼(344-407), 제롬(345-420), 어거스틴(354-430)은 노골적으로 반유대주의를 표명했다.

크리스토포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 유대인들은 악마에 붙잡힌 자들로 탐욕스러운 돼지와 같다.”고 말했다.

제롬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해할 능력이 없고, 그들이 참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가혹하게 핍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어거스틴은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다며, “저주를 받아 지구 위를 떠돌아 다닐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덴자우(Judensau, ‘유대의 암돼지’라는 뜻)의 부조는 기독교와 가톨릭 사회 안에 만연했던 반유대주의 정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덴자우는 중세에 처음 등장했으며, 교회나 대성당의 외벽에 새겨져 유대인들이 돼지의 젖을 먹는 모습으로 형상화되면서 길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조롱과 혐오의 상징이 되었다.

반유대주의는 십자군 전쟁(1096-1291)때도 만연했다. 유대인은 무슬림과 함께 그리스도의 적, 소탕 대상으로 여겨졌고, 예루살렘 전투 중 그들을 회당에 가두어 불을 지르는 만행까지 저지른다. 유대인을 식별하는 노란별을 붙인 것은 나치가 시초가 아니었다. 1251년, 교황 이노센트 3세

가 그들에게 노란색 표식을 부착해 식별했다. 중세시대 노란은 거짓과 비겁, 불충과 배반을 의미하는 치욕의 색이었다.

반유대주의는 흑사병, 종교재판, 루터의 주장 등을 거치며 더 강화되었다.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 당시, 유대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는데, 김인식 교수는 이 루터의 주장이 히틀러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회당을 불태우라, 집들을 파괴하라, 기도책과 탈무드를 몰수하라, 랍비에게 못 가르치게 하라, 어기면 처형하라, 통행권을 박탈하라, 강제노동을 부과하라”

그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일어난 포그롬(pogrom, 특정한 민족 집단, 특히 유대인에 대하여 일어나는 학살과 약탈을 수반하는 군중 폭동),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짚어가며,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에 대해 전했다.

그는, 홀로코스트보다 더 큰 상처는 “대부분의 교회와 세계 국가들이 학살에 대해 방관하고 유대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 잠근 것”이라며, 당시 폴란드 유대인 랍비 바이스만텔이 무고한 유대인들만이라도 살려달라는 편지를 로마 교황청에 보냈을 때, 돌아온 대답에 대해 나눴다.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이의 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이다.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당신들을 죽여 마땅하다.”

그는 반유대주의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이라며, 크리스천은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인식 교수의 저서 〈성경, 빅 픽처를 보라!〉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인식 목사는 웨스트힐장로교회에서 은퇴 후 킹덤 선교회 대표로 섬기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스라엘의 회복적 종말』, 『성경, 빅 픽처를 보라!』 등 저서를 통해 (2021) 등 저서를 통해 독자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알립니다
다음주 10월 31일자 신문은 휴간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1면 기사 〈美 기독교인들, 성경적 가치관〉에 이어서
더욱이 이 51% 중 절반(53%)만이 생명 존중 입장을 지지했고, 거의 3분의 1은 낙태 찬성 입장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연구는 강단에서의 교육 부족도 지적했다. 교회 출석자의 절반 이상(53%)이 “교회에서 낙태에 대해

연 1회 이상 설교나 교육이 이뤄진 다”고 답했지만, 개신교인 26%, 가톨릭 신자 16%는 “이 주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줄고 있다. 교회 출석자 중 “낙태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41%에서 2025년 28%로

감소했다.
클론 소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 존중과 같은 근본적인 이슈에서 도덕적 명확성을 잃는 것은 심각한 제자 훈련의 위기”라며 “성경은 모든 인간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고 분명히 가르친다”고 강조했다.

25일 ‘GEN Worship’ 찬양세미나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와 나성영락교회가 청소년과 차세대 예배 팀을 위한 위심 세미나를 오는 10월 25일 (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성영락교회(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에서 개최한다.

등록: QR코드
일시: 10월 25일(토) 오전 9:00 ~ 오후 3:00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부노회 목사 안수공고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총회와 노회 그리고 각 지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중을 세워 주의 거룩한 사역에 헌신케 하시니,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 총회 서부노회가 다음과 같이 목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이사야 49:16)

▪일시 : 2025년 11월 2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예수생명팀교회 (조준석 목사 시무교회) (213)700-5546

약력
한국 장신대 성경통신대학 졸업 (1990)
UCA 학사 및 석사 (2018)
미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상담학 박사 과정 이수
아멘교회(고, 이재성 목사님)과 동역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강도사 고시 합격 서부노회 강도사 인허 및 목사 고시 합격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부노회 목사 안수 위원회 안수

안수자 : 이 지현 강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부노회
총회장 김창영 목사 서부노회 전 노회장 정완기 목사

설교 대상 헨리아펜젤러대 조수아 신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회장 송정명·한기흥 목사)가 주최한 제10회 남가주한인신학교 연합설교페스티벌이 18일(토) 오전 9시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개최됐다. 올해 대상은 헨리아펜젤러대학교 소속 조수아 신 전도사가 수상했다.

올해 주제는 ‘연합을 이루어 나가자’로, 참가자들은 7개 제시 본문 가운데 하나를 택해 12분 이내 설교를 발표했다.

대회 10주년을 맞아 참가 각 신학교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차세대 강단 사역자 양성에 대한 지속적 후원에 사의를 표했다.

심사위원장 김은철 교수(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는 “이민 교회 현실 속에서 설교 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설교는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사역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설교대상(2,000달러) : 조수아 신(헨리아펜젤러대) △주해 상황화 대상 : 한병권(미성대) △주해 호소력 대상 : 김혜성(국제개혁대) △설교 구성력 대상 : 허창(예반젤리아대) △적용 실천성 대상 : 브라이언 리(그레이스미션대) △설교 시각화 대상 : 임우리(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 △다문화 접근성 대상 : 김진국(윌드미션대).

이번 페스티벌 장학금 후원은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은혜한인교회, 기쁜우리교회, 새생명비전교회, 이병문 장로(미주성시화운동본부) 등이 동참했다. 이윤준기자



제 10회 남가주 한인 신학교 설교 페스티벌이 18일(토) 오전 9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대상은 헨리아펜젤러 대학교 조수아 신 전도사에게 돌아갔다.

2025 LA 통일리더십 포럼 선한청지기교회서 열린다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사)는 10월 22일부터 27일(수-월)까지 “동행교회 목회자 초청 및 통일선교”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10월 22일(수) 오후 7시 히즈드림십에서 주찬미 목사와 장기호 권사가 간담회를 이끈다.

10월 24일(금) 오후 8시 교회 본당에서 탈북민 출신 장기호 권사가 “별목공 이야기”라는 간증을 전한다. 10월 25일(토) 오전 6시에는 주찬미 목사(여명교회 담임)가 새벽예배를 이끌게 되며, 10월 26일(주일) 오후 1시 45분-3시 45분까지 소예배실 2층에서 다큐 ‘人(인) 사이트: Into North Koreans’를 상영하며, 김의혁 교수, 이송민 대표, 이다니엘 목사, 주찬미 목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통일선교주간 마지막 날인 27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선한청지기교회 본당에서 ‘2025 LA 통일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

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에서 주최하고 선한청지기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 1부는 김의혁 교수(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가 “분단의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2부에서는 북한의 현



실을 담은 다큐멘터리 ‘人(인)사이트: Into North Koreans’ 상영되고, 김의혁 교수와 이다니엘 목사(IBA 사무총장), 주찬미 목사(여명교회 담임), 서예레미야 선교사(NOVO NK 대표)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

강사로 나서는 김의혁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프린스턴신학교 신약학 석사(Th.M.)와 풀러신학교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하나원 하나교회 담당목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교수, 커넥트코리아투게더 공동대표, 선교통일한국협의회 통일청년위원장 등 통일 선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GMU 세대통합예배 실천·확장 컨퍼런스 개최

플러튼에 위치한 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다음세대 신앙계승 프로젝트의 세 번째 단계로 ‘세대통합예배의 실천과 확장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11월 3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부에나파크 더블트리 바이힐튼(Sierra Room)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실천 연구를 진행해 온 연구팀의 결과 발표와 함께, 다양한 환경과 규모의 10개 파트너십 교회가 실행한 세대통합예배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각 교회들이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도전과 열매가 소개되며, 이



를 통해 한국·미주 교회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컨퍼런스 문의 및 등록은 이메일(cjhan@gm.edu) 또는 전화(714-217-1212)를 통해 한철주 교수에게 가능하다.

토마스 맹 기자

연세대 동문회 25일 ‘건강박람회’ 개최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가 10월 25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남가주 사랑의교회(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에서 ‘연세 건강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2010년 첫 연세 건강박람회를 개최한 이래 박람회를 지속하며 한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박람회는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주요 내용은 ▲일반건강검진및상담(내과, 안과,소아과,정신과등 전문 분야) ▲독감 예방접종, 간염 및 혈당 검사 ▲치매·우울증·불안증 진단 ▲건강 관련 세미나 등이다.

행사 관련 문의는 박지나 홍보·미디어 담당(310-293-5054, yonseconnectsc@gmail.com)에게 하면 된다.

성암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LA성암교회 (Holy Rock Church, 김요한 목사)가 오는 11월 2일(주일) 오전 11시 창립 5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어린 시절 목회자를 꿈꿨던 김요한 목사는 아주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LA기쁨의 교회에서 사역 훈련을 받았으며, 지난 2020년 11월 1일 성암교회를 개척했다.

교회 주소: 2551 Beverly Blvd #D LA, CA 90057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오픈뱅크-오픈청지기재단, 저소득층 지원 사업 확대

저소득층 재정적 안정 위해
직업 교육, 창출, 창업 관련
봉사 단체에 지원
정부 관련 사업 및 직업 교육
봉사단체들과 논의 지속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저소득층 지원 사업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오픈뱅크(회장 오상교)와 오픈청지기재단(이사장 최화섭)은 지난 14 일 저소득층 지원 비영리단체인 메이커스 허브(Makers Hub)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메이커스 허브는 공구 대여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로 주택이나 사업체의 개보수를 위해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에게 수리용 공구를 대여해 주는 곳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흠디포와 같은 상업용 매장에서 공구를 대여할 때



지난 14 일 비영리단체 메이커스 허브를 방문한 오픈뱅크의 제이 박 전무(왼쪽)가 메이커스 허브 관계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오픈뱅크

재정적인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 메이커스 허브는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 조경, 공

예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주택 개

가능하게 하고 재정적 안정과 자산을 키워나가도록 돕고 있다. 또한 메이커스 페이스(Makers Space)라

는 공간과 목공실도 마련해 등록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창업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은 앞으로도 메이커스 허브와 같이 직업 창출 및 창업과 관련된 봉사 및 사업에 대한 지원과 후원을 늘려갈 계획이며 특히 여러 정부관련 지원 사업에도 동참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재정적 안정을 찾는 데 힘을 보탬 계획이다.

오픈뱅크의 오상교 회장은 “현재 직업 창출 및 교육,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여러 비영리단체들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단순히 지원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직업 창출 및 창업이 얼마나 이뤄지는지를 종합 분석해 지원 사업의 규모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셉 리 기자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회 콘서트 성황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회(대표 임태우 목사, 후원회장 한영숙 권사, 총무 켈리 리 전도사) 콘서트가 지난 12일(주일) 오후 6시 플러톤 시에 위치한 은혜의 강 감리교회(김태호 목사)에서 열렸다.

김석기 설립목사의 사회로 시

협연에 안찬송 연주자도 참여했다. 공연 중간에는 오네시모 사역 관련 영상 간증이 상영되며 선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콘서트는 임 목사 부임 이후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듯, 오늘날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유익한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네시모 선교회는 오직 후원회 회원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다.

오네시모선교회는 후원회원들의 헌금으로만 운영되는 비영리 사역 단체로,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35개 교도소와 카운티·주정부 산하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재소자와 그 가족들을 섬기고 있다. 또한 교도소 방문 사역, 문서 사역, 성경 통신대학, 예방 사역, 추방자 연계 및 재활사역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선교회는 후원회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주소: 775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전화: 714-739-9100

홈페이지: www.onesimusministry.org/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후원회원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어우러져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됐다.

선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참여와 리더십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임태우 목사



작된 콘서트는 임태우 목사의 기도예에 이어 소프라노 황혜경, 메조소프라노 정희숙, 바리톤 김정호, 바리톤 장상근 등 연주자들의 여러 독창과 중창이 선보여 졌으며 남성중창단 칸투스도 자리를 빛냈다.

피아노 반주에 김소리와 첼로

아이엠 교회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LA에서 믿음의 울타리를 세운 아이엠교회(I AM Church, 담임 정종원 목사)가 창립 16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번 예배는 10월 26일(주일) 오후 1시, 교회가 위치한 412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에서 거행된다.

아이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라는 사명을 품고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사역,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과 선교,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의 사랑을 심어왔다.

정종원 담임목사는 “지난 16년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서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 목사는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www.iamch.org

www.instagram.com/iamchurchla

김현석 박사 암 찾기 의료세미나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회장 이현옥, 이하 시니어센터)는 10월 27일(월) 오전 11시 15분 시니어 센터 강당 2층에서 김현석 박사를 초청해 <생로병사와 암>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부병리, 임상병리, 혈액병리 전

문가인 김 박사는 Harbor-UCLA 레지던트, City of Hope 혈액암, 림프암, 골수암 전문 닥터이다. 18 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무료이다. 주소: 965 S. Normandie Ave, #200, LA, CA 90006 문의: (213) 387-7733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안심하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2026” 달라지는 혜택, 많은 약 보험의 많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Annie Moon**이 필요하십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으실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 Disclaimer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15 organizations which offer 97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your options.”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고두심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 여정을 함께합니다

2025년 메디케어 보험가입 및 변경기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65세 이상 시니어이신가요?

파트 A와 B를 모두 소지한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
혹 특정한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면 나이에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메디컬그룹에 가입전에 꼭 확인하세요!

보험회사, 메디컬그룹, 주치의 3가지를 선택하세요.
주치의가 센터메디컬그룹 소속인지 꼭 확인하세요.

회원 전용 혜택도 잊지마세요!

병원에서 집까지 무료 라이드 서비스, 매년 제공되는 문화 공연과
각종 행사들을 센터메디컬그룹 회원이시면 무료로 즐길수 있습니다.

 **센터메디컬그룹**



문의전화 **888.847.3098**

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센터메디컬그룹 이야기를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바라보는 예수’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21일 충현교회서 진행돼… 한규삼 목사, 스티븐 콜먼 교수 등 발제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2025-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컨퍼런스가 ‘창세기에서 바라보는 예수’라는 주제로 21일 서울 충현교회(담임 한규삼 목사)에서 열렸다. 이 컨퍼런스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충현교회와 웨스트민스터신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첫째 발제자로 한규삼 목사(충현교회 담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창세기는 원시복음이라고 불린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장 15절)에 따르면, 죄로 인해 원수가 발생했다”며 “죄와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 짓는 일이다. 복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됐던 우리가 다시 죄에 대해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죄와 짝하면 타하는 버릇이 생긴다. 선악과 범죄의 원인을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하나님 탓으로 돌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계 12장 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부술 것이라고 했다. 비록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지리멸렬한 전투에도 끝내 압승할 것이라고 성경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된다. 후손(seed, 씨)의 의미가 피를 이어받아 태어날 인물이기보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주장이다.(갈 4장 4절, 롬 16장 20절, 요 3장 8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리하면 창세기에 드러난 원시복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과의 전쟁에서 끝내 넉넉히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티브 콜먼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는 ‘창세기 12장 1-6절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는 “믿음의 삶은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니다. 편안한 길도 아니다. 믿음의 삶은 도전과제가 나타나고 대립하며 때론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며 “위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혼란을 마주하면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이는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과거의 관습에서 단절할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힘, 능력을 의지하던 삶이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겨왔던 과거의 삶에서 단절하라는



한규삼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값비싼 부르심이자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진입하라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하다”며 “자신을 숭배하는 삶,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촉구다. 이 부르심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발제한 스티븐 콜먼 교수(웨스트민스터신학교)는 “과거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새로운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죄와의 끝없는 투쟁이면서, 예수를 쫓는 삶이다”라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마 16:24-25)는 말씀처럼, 믿음은 과거와의 단절이지만 헤아릴 수 없

는 축복을 받는 삶이다. 많은 것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걸 보상받는 삶이다.(막 10장 29-30절)”라고 했다. 그는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은 조건적이지 아니다. 정직하고 경건한 바른 행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이라며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었다. 우상 숭배자였고 죄로 물들었던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과 복은 그가 죄인 일지라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이다. 이걸 모든 성도에게 적용된다. 믿음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자격과 노력, 행위로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자격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라며 “

히브리서 11장 8-10절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약속으로 받을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롬 9장 6-8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받을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아브라함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약속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모든 게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화되고 있으며 마지막 날 영화롭게 될 것”이라며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결실을 맺는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순종 혹은 우리의 믿음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달린 것”이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면 충분하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다고 선포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십자가 이후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자”고 했다. 이 밖에 이날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담임)가 ‘창세기 22장 1-14절 시험하시는 하나님’, 줄리어스 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가 ‘창세기 29장 15-35절 야곱의 갈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노형구 기자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올해는 콩고 위해

오는 11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 전 세계 130개국 약 10만 개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 올해는 지난 9월 8일 공격으로 기독교인 100명 이상이 살해되고 수백 명이 납치된 콩고민주공화국에 초점을 맞춘 특별 기도가 진행된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이하 한국 VOM)는 모든 교회와 소그룹이 이번 기독교인 학살 사건을 추모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영상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게시했다.

한국 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20여 년 전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을

제정한 이후, 전 세계 교회가 매년 11월 첫째·둘째 주일에 이 날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지난 9월 8일 IS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연합민주군(ADF)이 콩고민주공화국 교회를 겨냥해 유혈 공격을 일으키기 오래 전부터 전 세계 교회가 콩고민주공화국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9월 8일 공격은 장례식 중에 발생했다. 현지 성도들은 당시 목격한 장면, 즉 26명의 기독교인이 장례식에서 총에 맞는 장면이 계속 떠올라 여전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변 지역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총격을 당했고 집과 차량이 불에 탔다. 안타깝게

도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이 사건에 관해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현숙 폴리 대표는 “콩고민주공화국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게 된 것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현지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아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소그룹, 가정, 개인들이 콩고민주공화국 기독교인 및 전 세계 핍박받는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서 무료 자료들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WEA 종교자유위원회의 통계를 인용해 “오늘날 북

한이나 중국이나 이란 같은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알고 있지만,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3억 6천만 명이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국 VOM에서 2025년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을 맞아 제작한 영상 「다니엘과 알린(Daniel and Aline)」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끔찍한 핍박을 당한 기독교인들을 돌보는 사역에 집중하는 콩고민주공화국 기독교인 두 사람의 실화를 담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 영상은 9월 8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사건과 매우 유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격을 당하는 콩고민주공화국 형제자매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고통은 삶의 모든 국면을 방해하고 모든 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 영상이 콩고민주공화국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직면한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지만,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분위기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시청하기에도 적합하다”며 “다니엘과 알린 및 두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을 체험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매우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일들을 체험한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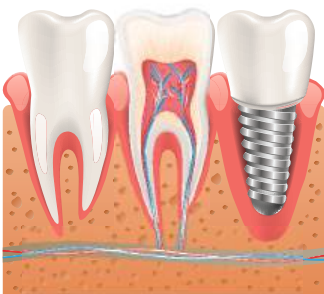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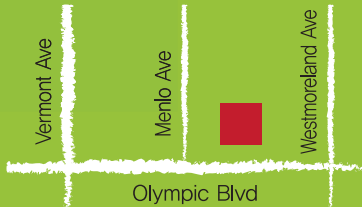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서울메디칼그룹 X 한미메디컬그룹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의료진, 더 많은 병원, 더 다양해진 케어

5,500여 명의 의료진

각 분야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크게 늘어나
나에게 맞는 의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폭 확대된 네트워크

제휴 병원, 의료기관, 헬스플랜 등이 늘어나
더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올바른 영양섭취, 운동 등 생활 속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등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개 가까운 진료과목과 케어

일반진료에서 재활, 정신건강, 가정간호까지
환자 증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향상된 시스템

쉬운 진료 예약, 빠른 전문의 및 병원 허가 등
환자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맞춤형 통합 케어

평소 관리가 중요한 시니어를 위한 정기
체크업 등 한분, 한분 가족처럼 돌보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기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섬세한 진료와 편안한 서비스로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800.611.9862**



SMG 카카오톡채널에
방문하세요!

홍보대사 **고두심**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체포된 中 가정교회 지도자
진밍리 목사 딸 “박해 잊지 말라” 호소



진밍리 목사의 딸 그레이스 진 드렉셀이 폭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YouTube/Fox News

중국 당국의 지하교회 탄압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구금된 저명한 목회자의 딸이 세계 교회에 “중국의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레이스 진 드렉셀(Grace Jin Drexel)은 19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Fox News Sunday)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 세계 교회의 일부이며,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줄길 바란다”며 “그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드렉셀은 미국 시민으로, 최근 구금된 에즈라 진 밁리(Ezra Jin Mingri) 목사의 딸이다. 진 목사는 10월 10일 중국 광시성 베이하이(北海)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당국은 그에게 “불법 정보 유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드렉셀은 “정치적 동기로 조작된 혐의”라고 주장했다.

BBC가 입수한 구금 통지서에 따르면 진 목사는 현재 베이하이 제2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정보방의 불법 사용’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드렉셀은 “이는 단순히 종교 박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구실일 뿐”이라고 말했다.

진 밁리 목사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에도 참여했던 인물로, 2007년 중국 베이징에서 ‘시온교회(Zion Church)’를

설립했다. 이 교회는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미등록 복음주의 교회 중 하나로 성장했으나, 2018년 정부에 의해 공식 폐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러 도시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줌(Zoom)과 유튜브(YouTube), 위챗(WeChat)을 통해 약 1만 명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진 목사가 체포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지에서 약 30명의 시온교회 지도자와 신자들이 체포 또는 실종됐다. 드렉셀의 남편이자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연구원인 빌 드렉셀(Bill Drexel)은 이번 사태를 “지난 40년간 중국 내 교회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단일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이번 탄압은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시작에 불과해 보인다”고 경고했다. 빌 드렉셀은 또 “중국 공산당은 국내외 정치적 긴장을 예상할 때 사회를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공공 불안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나사 조이기식’ 사회 통제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경 기자

파키스탄, 극단주의 이슬람 정당
TLP에 대대적 단속 돌입



지난 10월 13일 TLP 소속의 멤버들이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정에 대해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Screenshot from YouTube, News18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정부가 최근 극단주의 성향의 이슬람 정치조직 ‘테흐리크-에-라바익 파키스탄’(Tehreek-e-Labbaik Pakistan, 이하 TLP)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고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 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폭력과 증오를 선동해 온 단체에 대한 이번 조치는 기독교계의 신중한 환영을 받고 있다.

판자브 주 정부는 지난 13일 새벽, TLP의 ‘가자 연대 행진(Gaza Solidarity March)’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개시했다. TLP는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정을 ‘팔레스타인 억압을 위한 음모’로 규정하고, 라호르에서 출발해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다.

판자브 경찰에 따르면,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으며, 일부는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TLP 측 사망자가 3명이라고 발표했지만, TLP 소셜미디어 채널들은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난했다.

라호르에서 약 50km 떨어진 무리드케 지역에서 이뤄진 단속 작전 이후, 당국은 TLP 시위 참가자 2,700여 명을 체포하고, 출국금지 명단에 2,800명을 추가했다

고 밝혔다. 또한 전국 각지의 TLP 관련 모스크와 신학교 60여 곳이 폐쇄됐으며, 라호르 본부 역시 봉쇄됐다. 그러나 TLP 수장 사드 후세인 리즈비와 그의 동생 아나스 리즈비는 체포를 피해 카슈미르 자치지역으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리얌 나와즈 샤리프 판자브 주총리는 성명을 통해 “폭력을 선동하고 증오를 퍼뜨리며 법을 어긴 자들은 모두 체포될 것”이라며 “극단주의 단체 지도부를 반테러법 4조 명단에 등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테러 및 종파주의 혐의자들을 등록·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반테러 법률의 핵심 조항이다. 정부는 또한 TLP의 재산과 자산을 몰수하고, 포스터·광고·계좌를 모두 차단하며, 증오 조장 콘텐츠를 담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LP는 2011년 판자브 주지사 살만 타시르를 살해한 경찰관 몸타즈 카드리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여성 아시아 비비를 옹호한 이유로 암살됐다. 이후 TLP는 ‘신성모독법 수호’를 내세워 전국적인 폭력 시위를 주도하며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2017년, 2020년, 2021년에도 이슬람 선지자 풍자화를 이유로 수차례 폭력적 시위를 일으켜 경찰관 다수가 희생됐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1년 TLP에 대해 반테러법에 따른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단체 측과의 협상 이후 같은 해 11월 해제한 바 있다. 이후에도 TLP는 2023년 라호르-이슬라마바드 행진을 주도하며 일시적인 활동 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정부의 유화책으로 재차 활동을 재개했다.

이번 단속은 헌법 제17조 2항에 따라, 지방정부가 정당 금지를 연방정부에 요청하면 연방정부가 이를 대법원에 회부하여 최종 판결을 받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15일 내에 이 사안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엔 Only 오전 8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부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i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교회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절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3435 Wilshire Blvd. # 570(SF), L.A. CA 90010
T. (323)610-6989, www.uoragachur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C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잡으려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 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FC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헌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1부예배 8: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2부예배 11:00 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 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침례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세계로교회서 설교했던 美 목사 트럼프 대통령 만나



故 찰리 커크가 설립한 터닝포인트USA의 Faith 의장인 랍 맥코이(Rob McCoy) 목사(맨 오른쪽)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을 만났다. ©세계로교회

지난달 28일 부산 세계로교회 주일예배에서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대신해 설교했던 미국 터닝포인트USA의 Faith 의장인 랍 맥코이(Rob McCoy) 목사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터닝포인트USA 설립자로 총격 피살된 故 찰리 커크(Charlie Kirk)에게 미국 최고 민간 훈장인 ‘자유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추서했다. 이날은 커크가 살아 있었다면 32번째 생일이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맥코이 목사가 커크의 유가족 등과 함께 참석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JD 밴스 부통령

과 하원의장 등을 만나 담소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코이 목사는 얼마 전 세계로교회에서 설교할 당시 “단지 말 때문에 국민을 감옥에 넣는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며 손현보 목사 구속을 규탄했다.

또 그 다음날인 9월 29일에는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고신에국지도자연합(고애연)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맥코이 목사는 “손현보 목사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나라를 떠날 위험도 없었다. 그는 부산에서 신실하게 목회했다”며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을 지켰기에, 지금 임박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영광이 떠났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성경적 경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사무엘상 4장 22절) — 이 비극적인 선언은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지는 예언적 경고로 들린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표지였다. 그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 ‘이가봇’(Ichabod)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신적 심판의 상징이었다.

조셉 마테라(Dr. Joseph Mattera) 박사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게재한 칼럼에서 “성경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교회가 귀 기울여야 할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았다고 해서 영광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적 타락과 무관심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마테라 박사는 미국 사도 지도자 연합(The U.S. Coalition of Apostolic Leaders), 그리스도 언약 연합(Christ Covenant Coalition) 등 여러 단체를 이끌고 있다.

마테라 박사는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10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지도자의 도덕적 타락**
사무엘상 2~3장에서 엘리와 그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성적으로 부패하고 제물을 도둑질했다. 그러나 엘리는 이를 단호히 꾸짖지 않았다. 마테라 박사는 “거룩함을 본으로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죄를 방치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영광은 떠난다”고 말했다.
- 세속 문화에 동화**
예레미야 7장에서 이스라엘은 성전에서는 예배하면서도 삶에서는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고 경고하셨다. 마테라 박사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적응할 때, 거룩의 힘을 잃고 영광이 떠난다”고 강조했다.
- 인맥과 혈연을 우선할 때**
엘리가 아들들의 죄를 감싸며 하나님의 법보다 가족을 우선한 것은 ‘영적 연줄주의’의 전형이었다. 마테라 박사는 “교회가 성경보다 인간관계를 우선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 지도자들의 우상숭배**
예레미야 8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증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탄식하셨다. 그는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죄를 숨기는 이중적 지도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머물 수 없다”고 말했다.
- 죄에 대한 슬픔을 잃을 때**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죄악을 슬퍼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셨다. 마테라 박사는 “죄가 문제라기보다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고 말했다.
-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지 않을 때**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방문하신 때를 알지 못했다’며 눈물 흘리셨다. 마테라 박사는 “오늘날 교회도 예배 프로그램과 행정에 집중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첫사랑을 잃을 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바르지만 ‘첫사랑’을 잃었다. 마테라 박사는 “예수님께서 등불을 옮기신다는 경고는 곧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 거짓 교리를 용납할 때**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가르침과 니콜라당의 사상을 용납했다. 그는 “진리가 왜곡될 때 영광은 머물지 않는다”며 “이단과 혼합주의는 성령의 임재를 차단한다”고 경고했다.
- 거짓 예언자를 허용할 때**
요한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마테라 박사는 “교회가 인격보다 카리스마를 중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예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성령은 근심한다”고 말했다.
-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빠질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였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리라”고 말씀하셨다. 마테라 박사는 “편안함과 타협에 안주하는 신앙은 결국 영광을 잃는다”고 덧붙였다.
- 마테라 박사는 결론에서 “영광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와 타협, 무관심이 지속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거두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영광을 회복시키신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침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아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체움)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교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언약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목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목)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기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정관장 라크라센타점, 새 주인과 새 출발

라크라센타 지역의 대표 건강식품 전문점인 정관장 라크라센타점이 새로운 주인과 함께 새롭게 출발했다. 지난 6년간 같은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 받아 온 이 매장은, 지난 7월 이태훈·제시 부부가 새롭게 인수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기념하여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오픈 행사가 열렸고, 이어 10월 15일에는 정식 리본 커팅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La Canada Chamber of Commerce(라캐나다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라캐나다 소방서, 시의원, 지역 비즈니스 오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는 라캐나다 고등학교 학생들과 미스 라캐나다가 함께 참석해 지역사회의 의미 있는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관장이 우리 지역 건강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계속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새 주인 이태훈 대표는 “정관장은 단순한 건강식품 매장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정성과 건강을 선물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

정관장 라크라센타점.

장하고 사랑받는 매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 주인이 인수한 이후 매장은 더욱 깔끔하고 넓은 공간으로 재 정비되었으며, 제품 구성도 다양화되어 방문객들이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소중한 분들을 위한 선물을 고르기에 좋다. 또한 건물 전체가 리모델링되어 쾌적한 환경과 넉넉한 주차 공간(매장 뒤편)을 갖추고 있어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K 문화가 미국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K-푸드와 K-팝을 넘어 이제는

K-헬스의 시대, 정관장 라크라센타점은 바로 그 중심에서 ‘K-진생’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타인종 고객들 사이에서도 홍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인공첨가물이 없는 100% 천연 식품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리본 커팅식을 통해 정관장 라크라센타점은 지역사회의 건강 명소이자 K-헬스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다. 김민선 기자 3134 ½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GIFT, ‘정신건강이해와위기대응’ 특별과정개설

GIFT 전인코칭전문학교가 ‘정신건강 이해와 위기 대응’ 특별과정을 개설한다. 기간은 총 7주로 10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월 저녁 7~10시에 Zoom 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목회자와 선교사는 영혼을 돌보는 일을 넘어, 정신적으로 아픈 이들을 분별하고 적절히 연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과정은 CWCTP(GIFT 크리스천 전인코치 양성 프로그램)의 핵심 필수 과목으로, 임상심리학·신학·코칭·의학의 아우르는 전인적 접근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수강생은 7주 동안 ▶ 불안, 우울, 자살위기, 중독 등 주요 정

신질환의 징후와 초기 대응 방법, ▶ 경청과 공감, 판단하지 않는 대화의 기술, ▶ 교회·선교 현장에서의 안전한 개입 및 전문기관 연계, ▶ 리더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예방적 마음돌봄 리더십 등의 내용을 배운다. 강의는 임상심리학 박사 리더아 전(Psy.D.)과 의학박사 조셉전(M.D.)이 맡는다. 이 과정을 수료하는 수강생에게는 두 가지의 공신력 있는 특전이 제공된다. 첫째 미국 MHFA(Mental Health First Aid) 공식 자격증 발급: 수료 시 공신력 있는 미국 MHFA 공식 자격증이 발급된다. 둘째, 대학원 석사 학점 인정: 본 과정은 살렘 국제 대학원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되며, 향후 학위 전환 시 활용 가능하다. 10월 27일(월) 개강하며 10월 24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등록하는 모든 분에게 특별 할인과 입학 등록비 \$200 전액 면제를 제공하며, 목회자, 선교사, 사모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0 특별 장학금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그룹 할인’ 혜택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등록 링크: <https://giftcoachinginstitute.com/ko/about/gift-wpci-enrollment-form/> 웹사이트: <https://giftcoachinginstitute.com/ko/> 이메일: info@giftcoachinginstitute.com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CC

Show Room

949-781-911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가정의 달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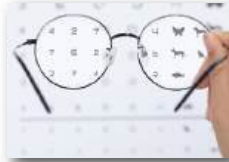
KISEIDO
EYE NOON EY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 | | |
|-------------------------------------------------|---------------------------|---------------|
|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 활성산소 완화 | ● 장내 효소 증가 |
|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 소화기능 개선 |
|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 빈혈, 간 기능 개선 |
| |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 면역체계 향상 |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213.384.3333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

목동 칼럼

잊을 수 없는 2025년 네팔 & 베트남!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필자가 섬기는 미라클 LA 교회는 안으로는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기를 꿈꾸고, 밖으로는 선교적 교회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회내의 EM에서 EM pastor와 EM co-leader에 의해 교회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DTS가 처음으로 오픈되었는데 담임목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출발이었다. 이렇게 필자가 감격적이라고 느끼게 된 것은 이미 필자의 교회에서 지난 7월에 파송했던 비전 50 네팔 선교팀도 EM이 리더쉽 팀에 의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필자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 우리의 두가지 영적 유산을 자연스럽게 물려주고 있다는 것에 감격하였던 것이다.

필자의 교회는 비전 50 선교를 위해 다양한 선교사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항상 6~8월을 선

교절기로 정하여 실행하여 왔었다. 선교절기에는 선교팀이 돌아오기까지, 전교인 40일 연속금식기도가 진행이 되고, 선교절기 기간에 요나선교학교를 오픈하여 단기선교팀이 집중적으로 여러가지 훈련과 준비를 하여 비전 50 단기선교팀이 출발하게 된다. 올해 선교절기 기간에는 비전 50 네팔본부와 비전 50 베트남 본부와 연결이 되어 필자교회에서는 비전 50 개별 국가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두 국가를 향해 각각의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었다. 7월 20일 첫번째 비전 50 네팔 선교팀은 EM 리더쉽의 인도를 따라 성도들이 출발하였다. 카투만두에 도착하여 비전 50 네팔본부산하의 카투만두 지역의 130명의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EM pastor와 필자는 그곳의 목회자들의 사역을 축복하고, 그들의 목회에 유익이 되는 강의들로 섬겼었다.

선교팀의 성도들은 그곳의 학생들을 위주로 말씀을 나누고, 장학생 면담과 여러가지 사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전 50 네팔본부에 속해 있는 비전교회를 방문해 예배하고 위로하였다. 그 분들은 시카장애자들로 사회에서 격리된 도시의 변두리에 자녀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다. 생활의 어려움도 많이 있기에 많은 식량을 지원하였고, 자녀들은 장학사역을 통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격려하였다. 부족하지만 함께 하였던 팀원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의 치유를 위해

모두 간절히 기도하였다.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네팔에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붕괴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비전 50 네팔 본부의 현지 목회자들이 요청하여 온 기도제목은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던 네팔 정부가 무너졌지만, 더욱 긴장하는 것은 네팔의 압도적인 힌두교로 인하여 극단적 힌두교 정부가 들어서면 네팔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이 염려되니 기독교 교회에 우호적인 정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였다.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린다.

9월 28일, 비전 50두번째 선교팀이 파송되었다. 두번째 비전 50 선교팀은 비전 50 베트남 본부와 연결이 되었다. 우리가 아는대로 베트남은 칠레와 같이 남북의 길이 엄청나게 길다. 북쪽 하노이에서 남쪽 호치민 까지 철도 거리가 약 1,726km의 거리가 된다. 하여 비전 50 베트남 본부는 남부, 중부, 북부 지부로 조직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북부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필자 부부, 시무 장로 부부 3팀, 모두 8명의 부부가 동역을 하였다. 선교도 귀하였지만, 시무장로 부부들과 함께 선교와 삶을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여 저희들은 두팀으로 나누어 사역을 하였다. 필자는 110여명의 목회자들을 만나 설교와 사역과 여러 대화와 축복의 기도를 나누었다. 또한 장로님 부부들은 는 70여

명의 북부지역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사전에 준비했던 강의와 간증들을 함께 나누었고, 베트남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며 서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최근에 이루어졌던 비전 50 선교는 필자에게 남다른 소회를 안겨주었던 선교였다. 첫째는 우리 자녀들, EM의 리더쉽이 선교를 이끌어주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무장로님 부부들이 모두 선교의 최전선에 함께하는 참된 전우가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절기동안 부족한 필자의 선교를 위해 무릎선교사로 후원하시던 모친의 소원이었다. 한국에 계신 형님의 전화가 왔었다. 아무래도 어머니 상태가 위중하니 뵈러 오는 것이 좋겠다는 전화였다. 형님의 목소리 너머로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또렷이 들렸다. 어머니는 갑자기 몸이 안 좋게 느껴져 아들집에서 하루를 보내시고, 아침을 드시고 자신의 발로 걸어서 병원에 가셨다. 그러나 필자가 급히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로 건너 가셨다는 카톡을 인천 공항에서 보게 되었다. 걸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다음날 어머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것이다. 새벽마다 아들이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하신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금도 나의 귓전을 생생하게 울리고 있다. 하여 어머니의 기도대로 비전 50과 함께 오대양 육대주에 복음을 전할 것을 다시 다짐해 본다. <다음 회에 계속>

강태광 칼럼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섬기는 영광과 축복!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또 다른 몸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있을까? 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말한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이웃 교회를 세상의 소망으로 여길까? 또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인정하고 교회를 존귀히 여길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교회를 멸시하는 문화가 만연하다. 심지어 교회가 교회를 인정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경쟁의 상대로만 보는 경우를 종종 본다. 나아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기는커녕 교회가 세상을 절망시키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 안타까운 장면도 접한다. 그런데 적어도 We Bridge에서는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We-Bridge에 있다. 이것이 We Bridge가 귀하고 아름다운 이유이다. 지난 3년간 우리 모두 We-Bridge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선언했다. We Bridge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있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종과 교회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교회들의 아름다운 헌신들! 이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격려하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향해 힘찬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를 섬기며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We-Bridge에는 4개의 교각이 있다. 첫째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들. 둘째 주

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주님의 몸 된 교회들, 셋째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헌신자들 그리고 넷째, 이 거룩한 섬김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감사하게도 지난 3년간 네 개의 교각이 든든하게 We Bridge를 세웠다. We Bridge를 만난 것을 감사하자! 지난 3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없지 않다. 좀더 사랑하고 좀더 섬김 걸 하는 후회도 있다. 좀더 세련되게 사랑하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섬기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려 시도했던 모든 몸짓은 거룩하고 아름답다. 아쉬움과 후회만큼 성숙할 것으로 믿으며 감사한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축복이요 영광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개척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귀하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는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주님의 몸 된 다른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멋지고 거룩한 일이다. 이 멋지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한 We-Bridge 운동에 동참한 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We-Bridge 운동이 우리 시대의 문화가 되고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어 다음 세대에 전해 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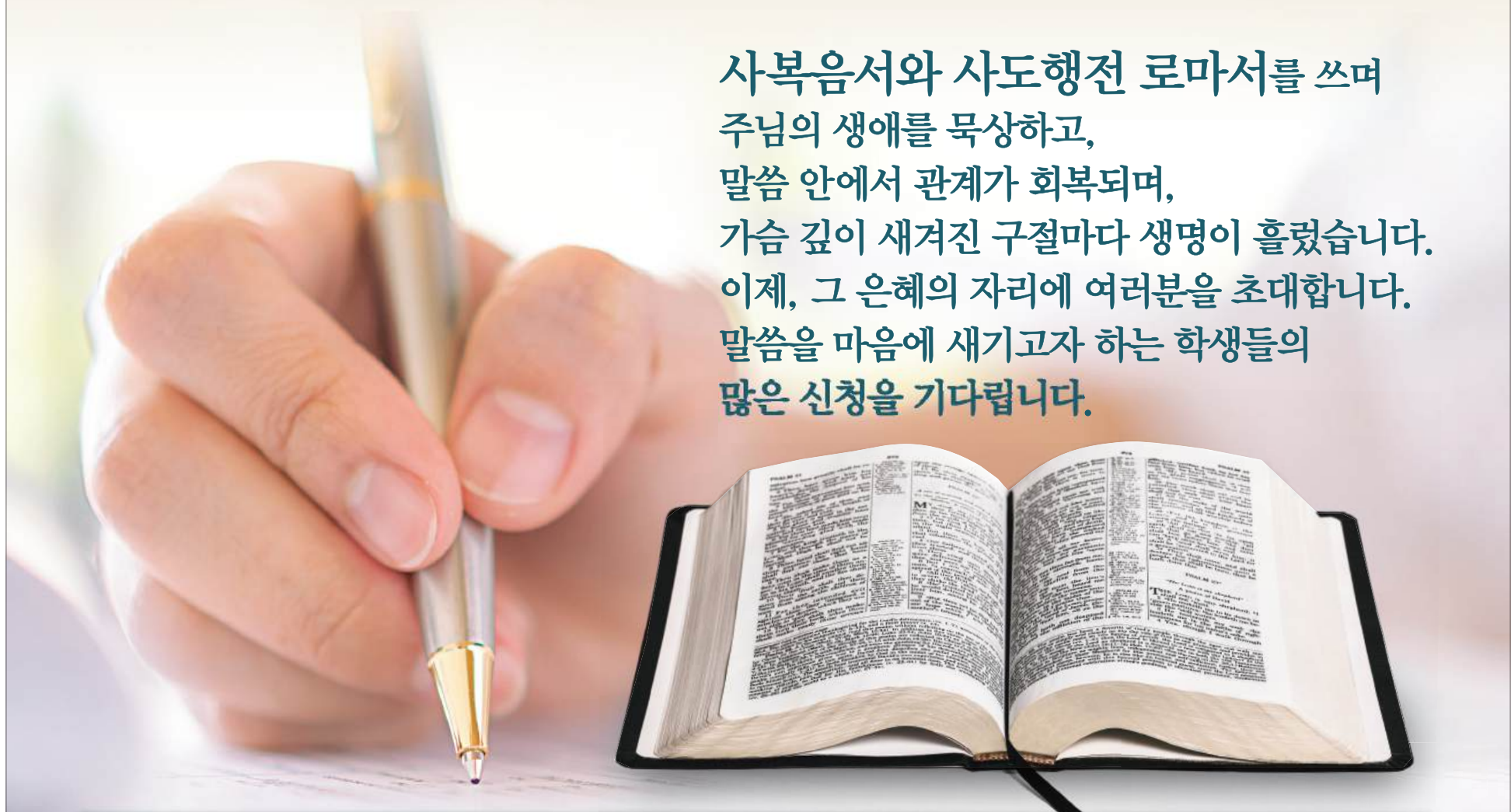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성경필사 제3기 장학생 모집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며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며,
가슴 깊이 새겨진 구절마다 생명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중 선택 가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 장 학 금** 1인당 **\$1,000** (선정인원 30명)
- 응모대상**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나이 만14세~23세)
-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신청마감** 2025년 11월 8일(토)까지
- 장학생 선정발표** 2025년 11월 15일(토) 개별통보
- 필사노트 제공 및 교육** 2025년 11월 22일(토) 오전 10시
- 장 소** 세계등대교회(담임 김도일 목사 1479 E. Broadway, Glendale, CA 91205)
- 장학금 전달식** 2026년 7월 중(장학생들에게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알려 드림)
- 문 의** 기독교일보 213-434-1170 chdailyreporter@gmail.com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교일보



주최: 기독교일보(Christianity Daily) 주관: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 “결국 다 잘 될 거야”란 뜻일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낸시 드무스 월게머스
구지원 역 | 생명의말씀사
304쪽 | 21,000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무력감에 좌절하며
희망을 내려놓아야 할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의 인식,
이해와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큰일부터 아주 시시콜콜한
일까지, 모두 선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한다. 그 진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Heaven Rules, HR)’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하지만 삶이 고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닌 모습으로 세상이 변해갈 때,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듯한 상황을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이해와 공감의 범위를 넘어선 일들이 발생할 때,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보좌에 계시지 않은 신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상황이 그랬다. 나라를 잃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도 빼앗겼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 그 나라 법과 전통, 문화와 종교가 요구하는 압박을 견뎌야 했다. 불합리하고 불경한 일이 계속 자행되더라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아야 했다. 현실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진리로 현실을 계속 재해석해야 했다. 이는 단지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진리가 아니라, 오늘날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진리이기도 하다.

낸시 드무스 월게머스는 이제 국내에 제법 소개된 훌륭한 여성 사역자이자 저자 및 강연가이다.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세움북스, 2023)>, <용서를 선택하라(생명의말씀사, 2023)>, <1020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세움북스, 2024)>에 이어 네 번째 책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가 생명의말씀사를 통하여 2025년 1월 출간됐다.

뛰어난 은사를 받은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소개되는 것은 정말 유익한 일이다. 디도서 2장 4절에서는 여성이 여성을 교훈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그리고 신중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가정을 돌아보도록 양육하라고 명령한다.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성숙한 여성이 교회 안팎으로 많이 필요하다.

특히 저자 낸시는 이 책을 저술할

때, 남편 로버트에게 두 종류의 암이 있음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진리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서에서 얻은 교훈과 실제 삶에서 적용한 진리를 가지고 독자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는 총 9장으로 구성돼 있고, 전체적으로 다니엘서 내용 흐름을 따른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는 자의 결론적 다짐은 마지막 9장에 10가지로 요약돼 있는데, 저자 낸시가 모든 독자에게 일으키기 원하는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①우리는 주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한다 ②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나, 자유가 위협당할 때나, 위로를 빼앗길 때, 겁에 질리거나 좌절하지 않겠다 ③우리는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한다 ④우리는 기도한다 ⑤우리는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으로 산다 ⑥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⑦우리는 교만에 저항하고 겸손을 추구한다 ⑧우리는 혼란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문화 속에서 확고함과 침착함을 유지한다 ⑨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교만하고 불경건한 지도자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음을 믿는다 ⑩우리는 우리 삶과 세상의 위기를 거짓 신들이 폭로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로 여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을 ‘결국 다 잘 될 거야’로 알아듣는다. 어떤 면에선 맞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다 잘 될 거야’라는 말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결국 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Pexels

기대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선한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실 때,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심지어 누군가의 죄까지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란, 믿음의 고백이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 무슨 일을 허락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 그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정신

승리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어떤 은혜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아는 자가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정치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적으로 불안정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경건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을 많이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저자 낸시의 이 책이 정말 귀하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확신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대저 여호와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언 3:26
For the LORD will be at your side
and will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PROVERBS 3:26



龍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CROCKETT HONEY
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tax

Bee Pollen
\$45+tax

Royal Jelly
\$25+tax

①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밀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②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③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제,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인정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새 담임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설교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청빙, 교회의 미래를 좌우한다’ 주제 세미나 개최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 이하 목데연)가 20일 서울 연동교회 가나니집에서 ‘청빙, 교회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지용근 대표가 ‘청빙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 대표는 “한국교회는 향후 10년간 대규모 담임목사 세대교체라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35년까지 약 7,800명의 담임목사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교단과 교회마다 후임 목회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곧 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와 성도 모두 공모제보다 ‘추첨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추천인으로는 외부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 교회 중직자를 신뢰하는 경향이 높았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새 담임목사에게서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설교력보다 ‘인품’과 ‘도덕성’으로 나타났다. 성품과 비전, 그리고 소통 능력이 목회의 지속성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조사 결과는 교회 내부의 인식과 실제 성도들의 기대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목회자의 학력이나 대형교회 경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대신 성도들은 권위적인 리더십보다 ‘수평적 리더십’을 지향하며, 새로운 목회자가 전통을 계승하기보다 변화를 주도하길 바란다. 이는 단순히 젊은 세대의 목



지용근 대표가 ‘청빙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최승연 기자

소리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청빙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교회 내부 인맥 중심의 평판조사 대신,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과 다양한 연령대의 위원 참여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교회 리더십의 재구성과 직결된다. 목회자 청빙은 더 이상 일부 중직자의 논의로 끝날 수 없으며, 성도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돼야 한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성도 전원의 의견 수렴, 면접 과정의 공개 등은 투명성과 공감대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나아가 새로운 목회자 선정은 단지 ‘후임자 찾기’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가치와 리더십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 선언이기도 하다. 인성과 영성, 비전과 소통이 균형을 이룬 리더십이야말로 교회의 미래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토대임을 이번 조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가 ‘청빙, 민주적 절차 중심에서 합리성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한국교회가 맞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청빙’ 문제다. 담임목사 교체 과정은 단순한 인사 절차가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영적 전환점이지만, 실제로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곤 한다.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기대치가 다르고, 절차가 아무리 투명해도 관계의 복잡성은 피할 수 없다. 청빙은 마치 결혼과도 같아, 아무리 오랜 시간 검

증하고 준비해도 실제로 함께 사역을 시작해야 비로소 서로의 본모습이 드러난다. 그렇기에 공정하고 신중한 절차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완전한 안전망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명목 아래 청빙 과정에서 오히려 혼란이 커지는 경우도 많다. 담임목사가 물러난 자리를 둘러싸고 장로, 중직자, 평신도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때로는 투표 과정이 선거처럼 변질되기도 한다.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한 뒤에도 ‘내가 지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공동체가 나뉘며, 회복보다 분열의 상처가 남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령교회에서 두드러진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근본에는 청빙을 위한 매뉴얼이 없다는 현실이 있다. 대부분의 교회는 20~30년에 한 번 청빙을 경험하기 때문에 절차적 경험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나 전문가의 조언은 배제되고, 경험이 없는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의사결정을 이끌어간다. 결국 30분 설교 한 편으로 후보자의 인품과 비전을 판단하고,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비합리적 구조가 반복된다. 교인들이 설교력보다 ‘인품과 비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음에도, 실제 제도는 여전히 ‘설교 콘테스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방향은 민주

주의적 절차 경쟁에서 ‘합리적 구조 확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회의 크기와 여건에 따라 맞춤형 청빙 매뉴얼이 마련되고, 위원회 중심의 구조가 전문성과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장로 중심을 넘어 청년, 여성,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포용적 위원회가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목회자 공급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공모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추천제와 검증 시스템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필요하다. 청빙은 단지 한 사람을 뽑는 절차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가치와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선언하는 신앙적 결정이다.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워질 때, 교회는 비로소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원구 장로(지구촌교회)가 ‘지구촌교회 청빙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장로는 “지구촌교회는 담임 청빙을 ‘미래준비위원회’의 과제로 묶어 진행했다. 단순히 후임을 뽑는 절차를 넘어, 교회의 시스템·제도 개선과 향후 건축 이슈까지 함께 다루며 변화의 물결을 한데 모으려는 설계였다. 출발점은 교회 DNA와 비전을 재확인하는 일이었다. 마을장·목자 대상 사전조사와 전 성도(7~8천 명 규모) 본조사로 정량·정성 데이터를 확보해, 교회가 원하는 담임상(성품·도덕성 최우선, 설교·연령·비전 순)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中의 탈북민 강제복송, 국제협약 핵심 원칙 위반하는 범죄”

강제복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복송반대 범국민 연합’(이하 국민연합)이 20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중국 내 탈북민 강제복송에 대해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한바이러스(코비드

19) 기간 가운데 탈북민들을 불법입국자로 억류한 2,600여명 중 600여명을 2023년 10월 초 항정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중국에 구금된 2,000명의 탈북민은 언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 살고 있어서 그들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 가운데 있다”며 “이러한 강제 송환은

단순한 출입국 관리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이자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과거 복송된 이들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구금되어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강제 실종 상태에 놓였으며,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비사법적 처형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당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특히 중국 남성에 의해 임신한 탈북여성의 경우, 구금시설에서 마취도 없이 강제 낙태를 당하는 충격적인 사례도 보고되었다”고 했다. 또한 “정치범들은 빠다귀에 가죽을 씌운 듯 마르고, 낭마 같은 웃을 입은 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처우와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며 “경비대원들은 정치범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수감자들은 노예처럼 행동

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수용소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으며, 특히 1990년대 말에는 시체를 너무 많이 보아 무섭지도 않을 정도였다는 증언도 있다”며 “2002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1990년대 정치범수용소 수용자의 20~25%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북한정권을 다루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왔다. 탈북민 대다수는 중국을 경유하거나 중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지만, 중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에 적발되어 구금된 후 강제복송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탈북이 시작된 이래, 중국의 강제

송환은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은 1951년 유엔에서 제정한 난민협약과, 1984년 제정한 고문방지협약의 협약 당사국”이라며 “난민협약 제33조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하여, 생명 또는 자유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난민으로 공식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인권 원칙”이라고 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CUCKOO

www.Cuckoorental.com
213-663-9899

▪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실한 서비스!

▪ 당신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쿠쿠**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투우밥술, 정수기, 공기청정기,텐탈, 구매, A/S 상담,현영

750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시온마켓 1층)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집 리버스 모기지를 할까요, 집을 팔아서 어뉴이티를 할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저는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72세 미스터 윤입니다. 제가 가진 제곱점을 하면서 미국에서 살아온 게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딸 하나 있는데 다 키우고 본인이 앞가림해서 잘 살고 있고, 이제와 저 처 이렇게 돌이켜보면 살면 되는데, 저희가 소멸로 받는 돈이 겨우 34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집 한채 있는 것이 지금 모기지나 이제 6만불 정도 남아 있는데, 현재 시세는 56만불이라고 합니다. 제 처가 건강이 좋지 않아 항상 골골해서 걱정인데 보험료 때문에 이 3400불 정도는 사실 부족해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교회 지인들을 통해 일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근히 사는 것이 안쓰러웠는지 딸은 집 하나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저한테 다 쓰라고 하는데 56만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교회에서 지인 분이 이런 경우 리버스 모기지를 해서 집에서 돈을 꺼내 쓰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는 사람은 최근에 모빌홈을 샀는데 8만 2천불이었고 나머지는 어뉴이티를 가입해서 은퇴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가 생각 중입니다. 문선영씨 생각에는 저희 상황에서 리버스 모기지로 할 때와 어뉴이티로 할 때를 자세히 비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해 주시면 제가 문선영씨를 믿고 판단을 내려 볼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선생님, 미국에서 재정상담과 재정플랜을 돕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

선영입니다. 윤선생님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는 손님들 중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집 한채 가지고 은퇴를 하는데 과연 집을 어떻게 은퇴로 활용할 것인가로 말이지요. 일단 리버스 모기지와 어뉴이티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아시아시피 내 집을 담보로 모기지를 내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돈을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모기지를 한 은행이 집의 소유주가 되어 오히려 집 주인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지요. 여기에는 당연히 리버스 모기지 보험료와 리버스 모기지의 이자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제가 대략 정밀 대략 계산을 해 보면 72세 나이이시니 보통 집 가치의 약42%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56만불 집에서 약 23만3천5천불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6만불 남은 모기지를 갚고 나면 십7만5천불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20년 정도 나눠서 평생 찾아 쓰고 여기에 리버스 모기지 이자율을 6% 정도 계산하면 매달 윤선생님에게는 약 900불에서1100불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20년 정도를 쓰고서 사망하시면 이제 집에 남아 있는 돈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녀가 이 집을 받고 싶다면 모기지 대출금 23만5천불을 갚으면 그때는 집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리버스 모기지는 자녀에게 집을 남겨주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반면 현재 집을 팔게 된다면 56만불에 기존 모기지 6만불을 제하고, 여기에 판매 비용 중계 수수료등

약 6%를 가정해서 33,600불 정도가 발생하거나 56만불에서 6만불을 빼고 50만불에서 비용 3,360을 빼면 실제 한 \$46만6,400불 정도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에서 10만불 정도 모빌 하우스 구매와 이사 비용등을 제하면 \$366,400불 정도가 남게 될 것이고 이 돈 중에서 6만6천불 정도는 비상시 대비 은행에 넣고 30만불만 어뉴이티에 넣어서 100세까지 받는다 해도 윤선생님에게 매달 지급되는 돈은 한달에 2,500불 정도가 지급됩니다. 집을 자녀에게 물려줄 목적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살던 집에서 사느냐,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느냐의 차이를 고려하고도 결국은 내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얼마씩 되느냐인데 리버스 모기지는 6% 이자를 내고 받는 돈으로 한달에1100불 정도, 어뉴이티는 오히려 7% 정도 이자를 받아서 한달에 2500불 정도를 받아 쓰는 것이니, 윤선생님 이제 비교가 되시죠? 더 구체적인 상담과 계산 등은 다시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정확한 넘버가 나오는지 비교도 해드리고, 플랜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을 리버스 모기지와 어뉴이티 설명할 때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리버스 모기지 계산 도표요. 대출 한도(Principal Limit)

\$560,000 × 42% = \$235,000
기존 모기지 상환
\$235,000-\$60,000 = \$175,000 사용 가능
월 지급액 (평생)
이 \$175,000을 “평생 나눠 받기”로 계산하면,
→ 72세 기준 기대수명 약 15~20년 + 이자율 6% 고려 시
→ 매달 약 \$900 ~ \$1,100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어뉴이티
56만불 집 판매-6% 수수료 33,600 = \$526,400
526,400-6만불 모기지 = \$466,400
\$466,400-모빌하우스 구매와 기타 비용 100,000 = \$366,400
\$366,400 - \$66,400 비상금 = \$300,000 어뉴이티
매달 약 \$2,500 정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제2기

We Bridge

교회 모집

We Bridge 사역은?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교회를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사역

예배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 성장을
돕는 사역

목회자 자기 개발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제공

We Bridge교회 **선정기준**

1. 교회 설립 10년 미만의 교회
2. 자체 건물이 없고 예배 장소를 빌려 예배 드리는 교회
3. 건강한 교단의 교회
4. 담임 목사 나이가 59세 미만, 담임 목사가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교회
5. 예배인원이 성인 40명 이하의 교회

선정된 교회에 주어지는 **혜택**

3년간 매월 \$500 지원 (2026년 1월~2028년 12월)

■ **신청기간** : 2025년 10월 25일(토)까지

■ **신청방법** :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선정발표** : 2025년 11월 1일까지 개별통지

■ **문 의** : 기독교일보 213-434-1170
chdailya@gmail.com





“교회가 교회를 세웁니다”

We Bridge 사역 1기 감사 및 2기 출범예배

날짜 :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1시

장소 :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주최 : 기독교일보(Christianity Daily) 주관 : 크리스천 다음 세대 연구소(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